

자식이 소유물인가... 비정한 부모들

초등생 자녀 둘 태우고 죽음의 질주 벌인 家長

부부싸움 뒤 순찰차 들이받아
아이들 무사... 경찰 2명 부상

아내와 부부싸움 뒤 "죽어버리겠다"고 고함친 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데리고 죽음의 질주를 벌인 30대 가정이 경찰에 긴급제포됐다.

숨을 마시지도, 악물에 취해 있지도 않았던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길을 막아선 경찰차를 향해 운전대를 틀고 가속페달을 밟아 고의로 들이받고서 검거된 직후 "안그래도 부부싸움 뒤 화가 났는데 경찰이 길까지 막아서서 화가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15일 오후 7시47분께 순천시 황전면 금평리 용두마을 입구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김모(35)씨가 운전하던 산타페 차량이 구례경찰서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 안팎에서 대기하던 경찰관 2명이 다리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아버지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9살 아들과 8살 딸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이날 오후 7시께 여수시 미평동 처가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죽어버

리겠다"며 아내에게 고함치고선 자녀를 차에 태워 길을 나섰다. 이후 소식을 들은 김씨의 아버지가 112에 "아들놈이 손주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큰 사고라도 날 것 같다. 어서 찾아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하면서 경찰과 김씨의 추격전이 시작됐다.

김씨는 이날 화엄사 IC부근에서 경찰에 목격됐지만 사고 지점까지 10여km를 경찰차를 따돌리고 전력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차량에 어린 자녀가 타고 있으니 안전하게 차량을 멈추라"고 40여 차례나 경고 방송했지만 김씨

는 경찰을 따돌리며 질주하다가 사고지점인 용두마을 앞 도로에서 길을 막아선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길을 막으면서도 애들이 다칠까봐 빠져나갈 틈을 일부러 줬다"면서 "그런데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보니 아버지 김씨는 애들이 다쳐도 상관없는 것인지를 경찰차를 향해 일부러 핸들을 돌리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자 김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광주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父母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조사
초등생 피해 34%로 최다

광주지역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피해아동의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384건) 중 모두 25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87건에 대해 고소·고발 조치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별로는 친아버지가 131건으로 절반이 넘는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친어머니 77건(30.4%), 의붓아버지 9건(3.5%) 순으로 조사됐다. 또 유치원 교사나 사내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5건(2%),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에 의한 학대도 각각 5건에 달했다.

피해아동의 가정유형별로는 친부모 가정 106건(41.9%), 이혼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 41건(16.21%), 이혼으로 인한 편모가정 38건(15%) 등이었다. 재혼가정과 미혼·미혼모 가정도 각각 14건(5.5%)으로 파악

됐다. 피해아동 연령별로는 초등학생(만 7~12세)이 86명(3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생(만 12~15세) 63명(25%), 영유아(만 0~3세) 48명(19%), 미취학아동(만 4~6세) 35명(14%), 고등학생(만 16~17세) 21명(8%) 순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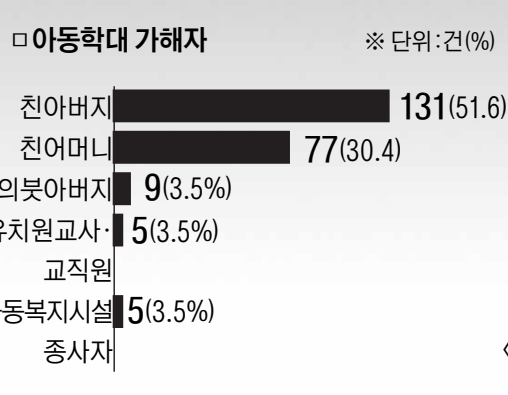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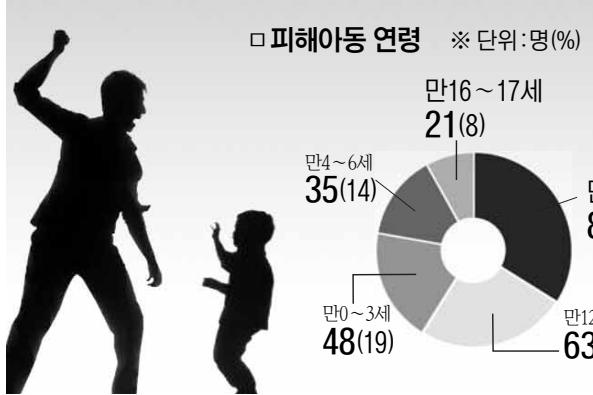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별로는 신체학대가 절반에 가까운 48%(179건)에 달했으며, 정서 학대 36%(133건), 방임 11%(41건), 성적 학대 4.6%(17건) 순으로 조사됐다.

부모를 제외한 신고자 중에서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57건, 교직원 45건 등이었으며, 피해아동 본인이 신고한 경우도 37건에 달했고, 이웃·친구 25건, 경찰 16건, 형제·자매 14건, 사회복지전문담임직원 13건 등이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고소고발과 함께 부모로부터 격리보호를 하기도 한다"며 "지난해 모두 35명의 아동을 격리보호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광주지역 아동학대 실태조사



〈자료: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PC방 흡연실서 지인 폭행

중태 빠뜨린 40대 영장 기각

범원이 지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북부경찰청은 지난 11일 PC방 흡연실에서 지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김모(45)씨를 긴급제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한 PC방 흡연실에서 지인 A(49)씨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분 뒤 흡연실에서 나와 쓰러진 A씨는 뇌출혈 증세를 보여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날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A씨의 얼굴에서는 다수의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PC방 CCTV에는 30분 동안 김씨와 A씨가 흡연실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다른 사람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전혀 기억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랑의 교복 나눔행사 준비...마음도 훈훈해집니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 주민센터(동장 이재인) 직원들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16일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사랑의 교복 나눔 행사 때 판매할 교복을 학교별로 분류하고 있다. 일곡동 주민센터는 23일과 24일 나눔장에서 한점당 1000원에서 5000원에 교복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북구장학회에 기탁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하남산단 7번로 1.2m 깊이 땅 꺼져...긴급 보수

광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땅 꺼져 현상(싱크홀)이 발생했다.

16일 광주 광산구와 광주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28분께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하남산단 7번로 삼성전자 광주공장 후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가로 1m, 세로 1m, 깊이 1.2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나 차량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광산구는 도로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긴급 복구공사에 들어갔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수관로 노후화로 연결 부위의 흙이 벌어져 물이 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날씨가 풀리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약해진 지반에 하수관에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흙이 휩쓸려 도로



가 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적 울렸다면 수십km 위험운전하고 먹살잡이



○...국도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수십km를 쫓아가며 위험운전을 하다가 급기야는 차를 세워 상대 운전자의 먹살을 잡은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16일 고흥경찰청에 따르면 허모(36)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께 고흥군 동강면 인근 한천 교차로 부근에서 남해고속도로 남순천 IC 하이패스 차로 앞까지 A(22)씨

의 차량을 30km가량 쫓아가 A씨의 먹살을 잡고 육살을 해 상해를 가한 혐의.

○...허씨는 A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0km를 쫓아가면서 3차례나 차량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허씨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12일) 전에 범 죄를 저질러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면했다"고 설명. /고흥=주각중기자 gju@

<h3>곡성 전원주택 매매</h3> <p>〈전남 곡성 오곡면 압록리〉</p> <p>광주에서 50분 거리 최저가 전원주택</p> <p>섬진강, 압록역 3분 거리 (토 80평, 건 30평)</p> <p>■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보 5백만, 월 30만) (용 2천만)</p> <p>매가 4천200만</p> <p>☆ 원룸 추천 ☆</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 코너) (모아 A.P.T 코너자리) (1층상가, 1개, 2개 분할가능) (4층 주택) (2~3층 원룸 6개, 투룸 2개) 보 4천만 월수익 480만 (용 1억5천만) → 매가 6억8천</p> <p>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 원룸6개) (보4천5백, 월20만) → 매가 7억8천</p> <p>③ 용봉지구 원룸 총룸-20개(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h3>1층 상가 매매</h3> <p>〈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p> <p>첨단 부영차 A.P.T.건너편 (광산 KT지사 부근)</p> <p>※ 미용실, 식당, 프렌차이즈 추천 (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p> <p>매가 1억5천만</p> <p>☆ 소액 상가투자 물건 ☆</p> <p>① 전남 곡성 전원주택 (토 80평, 건30평) (광주에서 50분거리) 압록역, 섬진강 부근 → 매가 4천5백만</p> <p>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오피스 → 매가 1억1천만</p> <p>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5천) (보5백, 월45만) → 매가 8천5백</p>	<h3>8층 상가 매매</h3> <p>〈첨단지구, 북구 오룡동〉</p> <p>삼성전자 정문 앞 교육시설단지, 공장단지</p> <p>1층 (상가) 130평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56개 8층 (주택겸사무실) (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p> <p>보 2억 - 월 3,000만 (용, 25억)</p> <p>매가 35억</p>	<h3>법률경매</h3> <p>(주)대신경매</p> <p>(특수물건 추천)</p> <p>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룸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 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3천 → 최저가 4억4천</p> <p>2. 동구 학동 (근린시설) (토 114평, 건 60평) (1층-사무실, 2층-주택) 학동동 주민센터 북서측위치, 약 2m 진입로 있음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1억8천6백</p> <p>3.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 건118평) 북구 두암동 우체국 옆, 2차선 도로 접 ☆ 1층 점포,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 5천 → 최저가 2억 5천만</p> <p>4.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 건31평) (1층~3층 총룸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p> <p>5.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p> <p>①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90평) (지하-청고 1층~2층-주택)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p> <p>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p> <p>① 서구 풍암동 (토 74평, 건31평) 풍암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1층-룸 5개, 2층-룸 5개, 3층-룸 2개)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p> <p>② 광산구 월계동 (토 86평, 건 161평) 한국방송통신대 북서측 인근, 8m도로 접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1억8천7백</p> <p>③ 서구 풍암동 (숙박시설) (토 174평, 건 424평) 총 5층, 10m도로 접, 임대시장 부근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6천</p> <p>④ 서구 생촌동 (토 90평, 건 364평) 1층~5층 총룸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 12억 → 최저가 6억8천</p> <p>⑥ 북구 중흥동 (토 81평, 건 298평) 총 5층, 중흥초등학교 북서측 인근, 약 8m 도로 접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7천</p> <p>☆직원 구함 ☆</p> <p>경매 컨설팅, 부동산 배수실분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분 모집 합니다.</p>	<h3>경매교육</h3> <p>경매 이해는 대중화시대!!!</p> <p>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p> <p>(입찰, 매매, 임대)개별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	---	---	--	--

010-6670-9800

010-7384-7800

010-6834-4800

010-6832-9700